

## 박완서의 향기 다시 느껴봅니다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

박완서·호원숙 외 지음

“엄마가 그리워지면 책을 꺼내 보면 될 것이 아닌가. 어머니의 따뜻한 숨결이 깃든 문장을 느끼기 위해 다시 들춰보리라. 그 빛나는 표현 속에서 더욱 살아 있는 어머니를 느낄 수 있으리라.”(호원숙 ‘따뜻함이 깃들기를’ 중)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의 향기를 다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 있다’가 출간됐다. 1992년 웅진출판이 박씨의 삶과 문학을 조망한 ‘박완서 문학앨범’과 이 책을 2002년 다시 펴낸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를 새롭게 꾸민 개정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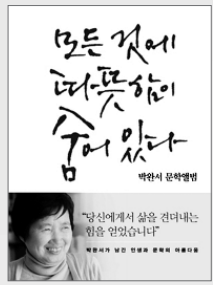
고인의 산문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와 자선 대표작 ‘해산바가지’,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을 비롯해 작가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누며 지냈던 딸과 김영현, 권명아, 김병의 등 동료 문인들의 글이 담겨 있다.

이들 통해 작가가 독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었던 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리 아픈말을 해도 그 뒤에는 언제나 그리움과 따뜻함이 남아있던 박완서 문학 그 자체이다.

작가의 말말 호원숙씨는 새로 실은 글 ‘따뜻함이 깃들기를’에서 아차간 자락에 있는 구리시 아치울 집에서의 기억을 되새긴다.

그곳에서 살림을 도맡아 했던 그는 손님을 초대하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메뉴를 짜서 건네고, 마당에 앉아 잡초를 솥아내고 호미를 들고 주저앉아 하늘을 쳐다보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다.

또 기념관이나 문학관을 만들지 말고 자신의 집에 딸이 살기를 원했던 어머니의 뜻을 생각한다. “새 생명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 노할머니가



▶작가의 작업실 벽에 항상 걸려있던 사진. 박씨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으로 타계 후 영정 사진으로 쓰였다. (웅진지식하우스 제공)



무릎을 꿇고 가꾸던 잔디 위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발에 흙을 묻히기를 꿈꾸신 게 아닐까. 작은 꽃 사이에서 그 애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첫 걸음마를 거둘어 주고 싶으신 게 아닌가. 어느 날 기적처럼 한 발을 떼는 그 순간을 꽃 뒤에 숨어 지켜보고 싶으신 게 아닌가.”(16쪽)

후배 소설가 김영현씨는 작가와 함께 떠난 여행담을 비롯해 살구 썸 덕분에 그에게 좋아리 받았던 이야기 등 작가와 함께했던 소중한 에피소드를 조곤조곤 들려준다.

박완서 연구자인 문학평론가 권명아씨는 평론 ‘미래의 해석을 향해 열린, 우리시대의 고전’을 통해 박씨의 문학 세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독자들에게 작가의 소설을 이해하는 길을 제시한다.

“박완서 문학은 ‘생명도 없으면서, 죽으면서, 요염하고 오만하게’ 아름다움의 의정만을 걸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 허위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뒷전에 생생하게

숨결과 체온마저 느껴지는 육성을 담아내는 이야기가 되고자 하는 작가의 치열한 모색과 다짐, 실천의 산물이다.”(262쪽)

또한 우연하게 작가의 첫 작품과 마지막 작품을 소개하고 비평한 김병익씨는 박씨와의 인연과 문학적 성취를 평론이 아닌 ‘박완서, 거지된 세상 아프게 꺼안다’는 제목의 에세이로 풀어나갔다.

여고생시절부터 임종직전까지 작가의 소중한 일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들도 반갑다. 책 곳곳에 수록된 70여 장의 사진은 우리가 즐겨 읽었던 그의 소설 속 어느 장면에서 그대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이외에도 작가연보, 작품목록 등이 부록으로 잘 정리돼 박씨의 삶과 문학세계 연구를 위한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4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작은 시골마을 노인들의 작지만 큰 향기

‘꽃 같은 시절’

공선옥 지음



곡성 출신 소설가 공선옥(48)씨의 새 장편 ‘꽃 같은 시절’이 나왔다. 지난해 ‘창작과 비평’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연재한 것을 단행본으로 묶어낸 것으로 연재 때부터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소설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철수와 영희 부부가 시골마을에 살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다.

꽃같은 시절은 작가가 길바닥에 나왔던 빈부부는 살 집을 찾아 시골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러다 분홍빛 복사꽃이 핀 어느 빈집을 발견하고 인심 좋은 집주인의 허락으로 돈을 안 주고도 살 거처를 마련한다.

그러나 행운처럼 찾아온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인근에 불법 채석공장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먼지와 소음으로 뒤덮이고, 주민들의 향기는 무시당한다.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인 주민들은 “조용히 살다 죽고 싶다”며 ‘데모’를 벌인다.

그동안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서서 서정적인 문체로 그들의 모습을 그려왔던 공씨는 이번 작품에서 순박한 할머니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

공씨는 작가의 말에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순하고 약한 사람들의 작은 향기들이 조용히, 간신히 무시되고 있을까. 지금 세상이 난리인 것은, 작은 향기들 때문이 아니라 그 작은 향기들이 ‘조용히’ 무시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참바·1만1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영감의 계보 찾아 떠난 세계여행의 기록

‘암보스 문도스’

권리 지음



소설가 권리는 예술가들이라는 존재 ‘짧은 정열(영감)을 작품으로 탄생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세계의 안과 밖, 즉 양쪽의 세계를 들락거리며 정력적으로 고통을 추구하는 자’로 규정했다.

“싸이코가 쓴다”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권리가 그 영감의 계보를 찾아 떠난 세계여행의 기록을 담은 책 ‘암보스 문도스’를 펴냈다. 책 제목 ‘암보스 문도스’는 스페인어로 ‘양쪽의 세계’라는 뜻이다.

작가의 여정은 2002년부터 시작됐고 독일, 영국, 스페인, 칠레, 쿠바 등을 아우르는 여행 이야기는 작은 흔들림(小搖), 떠들썩한 소동(騷擾), 산책(逍遙) 세가지 ‘소요’의 카테고리로 묶였다.

저자는 파타고니아에서 본 빙하, 칠레에서 만난 울창한 정글, 쿠바에서 접한 체게바라의 흔적 등을 이야기한다.

또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 카뮈의 ‘안과 결’, 이사벨 아옌데의 ‘세피야의 초상’ 손창섭의 ‘단편집’,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 등 책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책과 작가, 영화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중에 만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와 에피소드들이 재미있다.

“이것은 여행기가 아니다”는 작가의 말처럼 풍경 사진 한장 없는 책은 여행사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읽힌다. 〈소담출판사 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비현실적 경제논리에 대한 경고

‘경제학을 리콜하라’

이정전 지음



1930년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들은 주요 경제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 ‘하버드 경제연구회’를 만들었다. 이들은 세계 대공황이 터지자 경기 침체가 완만하게 진행될 거라 예측했지만 극심한 불황은 10년이나 계속됐다.

또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 경제학계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정전 전 서울대 교수의 ‘경제학을 리콜하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왜 이렇게 빗나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그 이유에 대해 “인간에 대한 경제학의 비현실적인 시각”에서 답을 찾는다.

그는 경제학의 핵심 단어로 ‘손의 계산’과 ‘수지타산’을 꼽았다. 인간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꼼꼼히 비교한 다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선택하는 존재라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전제라는 것이다.

가령, 경제학적인 논리로 본다면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손의 계산을 해본 결과 범죄가 수치맞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이에 검거 확률이나 형량을 대폭 높이는 식으로

“잃는 것”을 더 크게 만들면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율 급락에 기여한 조치는 형량 강화 등이 아닌 낙태 합법화였다. 경제학은 이처럼 일반인들의 정서에서 한참 벗어나 있고, 인간의 행태를 수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들기 때문에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저자는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도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경제학의 성서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만 끌어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로까지 계승하고 있지만, 애덤 스미스는 또 다른 저서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학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로 눈을 돌려야 한다. 각종 경제 그래프와 수치, 통계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이고,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학, 현실적인 경제학이 ‘리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사·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야구는 몸 아닌 머리로 하는 스포츠

‘타격의 과학’

테드 윌리엄스 지음



야구용 몸의 영역에서 머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기념비적 저서 ‘타격의 과학’이 번역·출간됐다.

미국 메이저리그 마지막 4할대 타자였던 테드 윌리엄스가 쓴 이 책은 수많은 야구 기자와 칼럼니스트, 타격코치를 사이에 전설의 책으로 전해지며 야구가 왜 위대한 스포츠인지 가르치고 있다.

“타격의 절반은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좋은 타격을 위한 손, 발, 머리, 어깨의 위치와 움직임부터 스윙 자세까지를 정확한 수치와 함께 친절하게 짚어준다.

그는 타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타석에 서자마자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을 기다

리며 고르는 일이라고 전한다.

그의 이런 논리와 타격에 관한 숏한 명언들은 야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재생산되었으며 심지어 금융 투자자들의 투자 원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 책의 초판 표지를 방에 붙여놓고 이 책에 담긴 ‘타자의 선구안과 기다림의 미학’을 자신의 투자원칙에 적용했으며, 틸만 나면 ‘테드 윌리엄스 타격 예찬론’을 늘어놓곤 했다고 한다.

야구 선수를 꿈꾸거나 취미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야구의 묘미를 하나라도 더 찾아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책이다. 〈이상·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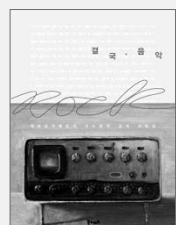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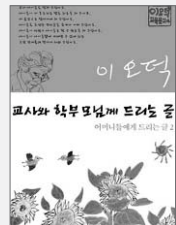
## 신간

▲교사와 학부모에게 드리는 글=이오덕 교육문고 네 번째 권. 이오덕(1925~2003년)의 글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에게 전하고자 했던 교육에 대한 글을 모아 엮었다.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짧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인간 교육, 참사랑을 기르는 교육, 인성교육을 위한 원칙과 방법이 담겨 있다. 〈고인돌·1만5000원〉

▲결국, 음악-대중음악평론가 나도원의 음악신문집=대중음악 평론가 나도원씨가 한때 수부터 장기까지, 주류무대를 주름잡는 결 그룹에서 흥대 앞 인디밴드를 오가며 다양한 음악과 음악인을 통해 우리가 밟고 선 세상을 읽어낸다. “우리네 삶이 ‘결국 음악’으로 귀결된다”고 정리하는 책은 한국 대중음악에 관한 ‘재미’와 ‘의미’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다. 〈북노마드·1만6000원〉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이상림(주)공간그룹 대표 등 17명의 건축가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직업 안내서이다. 새내기 건축가들의 좌충우돌 일기와 건축가의 노동 강도, 보수, 전망, 건축가에서 건축사가 되는 과정 등 건축가라는 직업에 대한 실제적 정보도 풍부하게 담았다. 건축가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준다. 〈부키·9500원〉

▲한국의 차 문화 천년 3-삼국시대·고려의 차 문화=2009년 출간된 ‘조선 후기의 차문화’ 1, 2권의 후속편. 삼국시대·고려의 차 문



화 관련 시문(詩文)을 엄선해 번역했다. 정몽주, 이규보, 이색 등 선조의 차 사랑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차 관련 문헌을 시대별로 정리할 이 시리즈는 6권까지 나올 예정이다. 〈웅진지식하우스·2만8000원〉

▲팀장이 가져야 할 마케팅 센스=마케팅 전문가인 빌 리처드슨과 루스 고스네이가 마케팅의 정의에서부터 핵심적인 개념과 이론까지 팀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케팅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 복습 문제와 활동 과제까지 제공해 실전에 응용할 수 있게 했다. 〈비즈니스맵·1만2000원〉

▲바보 빅터=‘마시멜로 이야기’의 작가 호아킨 데 포사다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국제멘사협회 회장이 된 천재 ‘빅터 세리브리아코프’가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실화를 바탕으로 살면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전한다. 〈한국경제신문·1만2000원〉

▲여기는 독도=일간지 편집기자인 전충진 씨가 2008년 9월부터 1년간 독도에서 숙식하며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썼다. 독도에 사는 사람들과의 만남, 독도의 생태 등에 대한 저자의 생생한 체험이 담겨 있다. 독도의 실질적 지배를 뒷받침하는 공식자료이자 전 국민을 위한 현장감 넘치는 독도 교과서이다. 〈이레·1만5000원〉



## 어린이 책꽂이

▲노란상상·9000원  
▲애들아, DMZ에서 공을 차자=비무장지대(DMZ)의 생태계 이야기. 생태운동가인 박진섭씨가 전쟁의 비극을 인문 채 60년이 지난 지금, 중요운 생명과 생태계가 만발한 DMZ에서 평화의 해답을 찾아준다. 〈한울림·1만2000원〉

▲우리 집 전기 도둑-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절약=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이호’네 가족은 이호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자신들도 모르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린다. 이호 가족은 전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휴이념·9500원〉

▲매일매일 금요일=엄마 아빠 잔소리와 선생님과의 편지에 24시간 시달리던 나한테 “매일 금요일이었으면...”하는 생생한 소원 이루어진다. 모든 일이 똑같은 순서로 계속 되풀이된다면 어떨까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일상을 빛나게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새겨준다. 〈국민서관·8000원〉

